

이석연 불출마... 서울시장 선거 출렁

한나라 나경원-야권 단일후보 1대1 구도 전망

재야보수 '정치실험' 차질...시민후보 대결 무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시민후보'로 나선 이석연 변호사가 28일 출마 포기를 결심하면서 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이 변호사가 불출마 입장을 나타내면서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전은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과 오는 3일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야권의 단일 후보의 1대1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언론을 통해 "개인적으로 불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늦어도 내일 중으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제가 걸어온 길을 알고 한 법적 가치를 전달하며 시민들에게 다가가면 될 줄 알았는데, 지지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의 출마 포기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성향의 시민 세력을 결집하려던 보수 진영의 '정치 실험'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나 후보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민사회 박원순 후보 간의 경선에서 선출되는 단일 후보와의 대결 구도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전날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나 후보는 28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서울시 복지서비스 수준의 균질화를 비롯한 복지정책 발표와 민심행보에

국민참여경선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론'을 내세워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시민사회 박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내세우며 '대세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공세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시민사회회의 박원순 후보는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야권 후보단일화를 1차 관문이라고 보고 통합후보 경선 승리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박 후보는 여론조사상 지지도가 상승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정기권에서는 시민사회의 박 후보

에 대한 정치적 검증 결과가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지상옥 자유선진당 전 대변인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한나라당에 범(凡)보수 단일후보를 뽑자고 제안했다. 지 전 대변인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9만332표(2.04%)를 얻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권 단일후보 약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박원순 변호사, 민노당 최규업 후보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협약식을 마치고 나서 관련 대표들과 손을 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변호사, 민주당 박영선 의원, 민노당 최규업 후보, 민노당 김종민 서울시장 위원장.

/연합뉴스

여의도 움직인 영화 '도가니'

민심 분노에 여야 의원들 장애인 인권 개선 촉구

영화 '도가니'가 민심의 분노를 이끌어 국회법을 움직였다.

여야는 28일 영화 '도가니'를 통해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들끓자 뒤늦게 장애인 인권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도가니라는 영화로 모 학교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이 뒤편이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을 뒤편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이날 "복지재단의 부정,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게 할 의무, 정의를 바로세울 의무가 있다"며 "2007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막힌 사

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별 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등 외부기관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들로 이사회 25%를 채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영화 '도가니'의 국회 사회화를 제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문수 "MB도 박정희·노무현 처럼..." 발언 파문

"측근 비리로 어려움 겪게 된다는 것" 즉각 해명

김문수 경기지사가 28일 역대 대통령의 비극적인 삶을 언급하며 "MB대통령도 김조가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예기하며 이 대통령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위암스를 풍겨 파문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

장 박세일) 주최 '한신국가전략포럼' 초청 특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총에 맞아 죽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바위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 이명박 대통령도 김조가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세

계에서 제일 성공하고,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국민인데 대통령들 왜 이러나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측근비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 말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원순 펀드' 이틀만에 38억원 돌파

광주 은 손 "서울시장 선거 도와달라"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박원순 펀드'가 불과 47시간 만에 목표금액 38억8500만원을 채우고 조기 마감됐다.

박 예비후보의 선거 캠프 측은 가입자 7211명 중 5778명이 실질적으로 입금을 마쳤으며, 1인당 67만2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계산됐다고 28일 전했다.

박원순 펀드는 26일 오후 모집을 시작해 약정액을 기준으로 2시간 만에 3억원을 돌파한 뒤 하루만인 27일 오후 25억3000만원을 기록했고, 28일 오전 11시 목표금액을 채워 마감일이 예정일인 30일 자정보다 당겨졌다.

펀드 가입자는 7211명에 약정금액은 45억23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목표금액을 달성한 후 자동적으로 은행 계좌가 닫혀 1433명은 대기상태로 남아있다가 결국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펀드 투자금은 CD연금리 3.58%로 12월25일 이전 원금과 이자가 함께 상환되며, 펀드가 마감돼도 10월6일 공식 후보 등록 후 후원금을 새로 걸을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정권교체의 중요한 발판이자, 출발점인만큼 민주당의 고향이고, 민주당의 정치기반인 광주·전남 시·도민이 적극 도와야 한다"고 지역민의 도움을 호소했다.

"제8회 총장추세" 개막식에 참가한 손 대표는 동구 급남로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의원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부패와 특권비리에 당당히 맞서는 민주당의 선봉장이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함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박영선 의원이)서울시장을 맡게 되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내년 정권교체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며 박 의원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또 박원순 예비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꺾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범야권 단일화가 남아있지만, 당으로서 전략은 없다. 전략보다는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영선, 기사·상인들 접촉 광폭행보

박원순, 직장 여성·대학생 표심잡기

야권 후보단일화 경선 룰 타결

야권의 후보 단일화 경선 룰이 정해진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민사회의 박원순 후보가 본격적으로 표심잡기에 나섰다.

우선 민주당 박 후보는 28일 오전 LPG 총진소를 방문, 개인택시 운전 기사들을 만난데 이어 가락동 농수산 물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 의원은 국회 의정관으로 자리를

옮겨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 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고 민주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원은 오 후에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수요집회에 참석해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는 이날 직장 여성과 대학생에 대한 집중 공략에 들어갔다. 박 후보는 이날 낮 구로구

청 광장에서 열리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나눔 장터'를 방문,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만나 지원 대책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그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방문, 초등학교 무상급식 현장,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애로 청취, 가정주부들의 모임 등 잇따라 현장 민심 청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박 후보와 시민사회회의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회가 주최한 '대학생 학자군 대출이

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와 참여연대의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 평가토론회'에 각각 참석해 정책대결을 폈다.

한편, 야권은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명부를 공개 여부에 대해 시민사회 측이 공개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배심원단 투표는 2000명의 배심원을 미리 모집한 뒤 1차례 TV 토론 후 배심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시민 여론조사는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로 거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지형) 광산구비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지,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9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
- ▶중주거지역 (병원, 시육,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산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용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경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근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판공광고전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수완지구 상가 분양 전문 임대 전문

학원·병원

한의원·고급식당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즉시입주가 가능 시비없음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4억8천만 최저가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4억2천만 최저가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223평 건평28평 감정가2억4천만 최저가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4억5천만 최저가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34평 건평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2억5천만(조정가능)

토지매매

- 무안군 해례면 천창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창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웨딩·객실 대형홀인 행사

GRAND OPEN 1주년 기념

- 새롭게 준비한 총 100가지 뷔페
- 객실 50%할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연모임,기업행사)

- * 대형예식장 뷔페식비 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합니다.
- *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치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 *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 *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예약문의 362-0011, 600-9999